

귀국 대학생들의 문화 가치, 문화 지능과 재적응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임 선 민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

연 규 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문화변용전략의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북미에서 3년 이상 수학하고 귀국한 대학생들의 문화가치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한국 재적응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지능을 통제된 후 한국 문화 가치와 재적응의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총 563명의 대학생(귀국 학생 104명, 국내 학생 36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귀국 학생과 국내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연구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Welch's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한국 문화 가치와 재적응의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귀국 학생들이 통합의 전략을 사용하여 양쪽 문화 가치를 모두 수용하고 있을 때 주변의 지지를 잘 받고 재적응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귀국 대학생, 한국 문화 가치, 북미 문화 가치, 사회적 지지, 문화 지능, 재적응.

* 본 연구는 임선민(2016)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귀국 학생들의 문화적 가치, 문화 지능, 사회적 지지와 한국 재적응의 관계’를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다산관 336호

Tel : 02-705-8327, E-mail : kjyon@sogang.ac.kr

지난 10여년간 조기 유학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현상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김소희(2015)에 의하면 한해 2만 명의 학생들이 조기 유학의 길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귀국 학생들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유학 경험이나(강희숙, 2010; 이기홍, 2005), 귀국 후 중고등학교 장면에서의 재적응을 탐색하였고(곽영호, 2000; 김창호, 2002; 박주용, 2011; 이장영, 최화순, 1996; 정재욱, 주은선, 2003) 상대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 귀국 학생들의 특징이나 재적응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지영과 박규리(2008)에 따르면, 귀국 학생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언어적 어려움, 학업적 어려움, 교우 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로 선택의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그렇다면 귀국 학생들은 왜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주했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문화적으로 변화가 있는 반면(Schaetti, 1996), 모문화권에 남아 있던 가족이나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귀국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기 이전과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귀국 학생들에게 일어난 변화나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Sussman, 1986). 또한 귀국 학생들 역시 자신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변화를 이해받지 못해 새로운 교우 관계를 맺는 데 힘들어한다(An, 1985). 따라서 관련 연구들은 귀국하는 사람들이 역문화 충격(reverse culture shock)을 겪기도 하며, 이주민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Adler, 1981; Baughn, 1995; Chamove & Soeterik, 2006; Linehan & Scullion, 2002).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귀국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오경자 등, 2010; 정안숙, 오경자, 오서진, 박규리, 2015, Choi, 2009),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 수준을 예측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미에서 수학 후 귀국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재적응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Berry(1997)의 문화변용전략의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귀국 학생들의 문화 가치를 측정하여 문화변용의 통합전략이 재적응을 예측하고, 이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했으며, 이때 문화 지능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Berry(1997)는 이민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문화변용 이전과 과정 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Berry는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상태, 이민의 동기, 성격적 특성 등의 요인들이 문화변용 이전부터 개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후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문화변용 과정 중의 요인으로 문화변용전략, 대처, 사회적 지지, 사회적 태도 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erry(1997)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변용 과정 중 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문화변용전략, 사회적 지지와 대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을 예측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Berry(2005)의 문화변용전략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

되었지만, 아직까지 모문화권으로 귀국한 사람들의 재적응을 설명하는 데 적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문화변용전략이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게도 통합의 변용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문화변용전략과 적응 혹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탐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로 인해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아 이를 매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Han, Berry, & Zheng,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적 지지가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에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문화 가치의 수용 정도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재적응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 등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학과 귀국 등으로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했던 귀국 학생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재적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Berry(1997)는 문화변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문화 지능이란 이주 과정과 같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Earley & Ang, 2003), 문화 지능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국 학생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학생들과 비교하여 문화 지능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재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 지능을 통제하여 재적응 과정에 문화 가치 수용 정도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Berry(1997)의 문화변용전략의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귀국 대학생들의 문화변용의 통합 전략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재적응 수준을 높이는지 탐색하고, 문화 지능이 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귀국 대학생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 문화 지능,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국내에서만 수학한 일반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귀국 대학생과 국내에서 수학한 일반 대학생들이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 북미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 사회적 지지, 문화 지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문화 지능이 재적응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 통제된 후, 귀국 학생들의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과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재적응을 예측하는가?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탐색하여, 본 연구는 귀국 대학생들의 재적응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상담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변용전략과 재적응

세계화를 통해 국경을 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문화권에 정착하는 일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Szkudlarek, 2010). 귀국하는 사람들이 이주민들

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Adler, 1981; Baughn, 1995; Chamove & Soeterik, 2006; Linehan & Scullion, 2002), 해외에 거주했다가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Szkudlarek, 2010). Martin (1984)는 귀국 후 문화 재적응이 적응보다 더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이 타국으로 이주할 때에는 변화와 어려움을 예상하지만, 모문화로 돌아올 때는 가치관, 믿음, 행동 등의 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또한 이주 이전과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Martin, 1984).

이러한 재적응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기대 모델(expectation model)은 귀국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들이 재적응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Adler, 1981; Black, 1992; Rogers & Ward, 1993).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주 문화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적응의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귀국을 앞둔 사람들이 친숙했던 모문화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알아보는(reality check) 과정은 그들이 이주 기간 동안 변했다는 것을 종종 확인시켜 준다(Black, Gregersen, & Mendenhall, 1992a). 따라서 귀국 학생들의 경우, 해외 경험 이후 그들의 재적응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는지 혹은 모문화인 한국의 문화와 규범과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재적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란 서로 다른 문

화가 공존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변용의 과정을 하나의 종합적인 틀로 제시하고 있는 Berry(2005)의 문화변용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의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을 설명하고자 한다. 문화변용(Acculturation)에서 심리적 변화란 가치, 이념, 믿음, 태도, 지각 등의 개인 내적인 측면들의 변화를 말하고, 행동적 변화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언어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외적인 측면들을 말한다(Ward & Kennedy, 1994). Berry(2005)는 이러한 문화변용이 일어날 때 개인이 취하는 태도로 문화변용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을 제시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때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맞추어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는 문화변용 과정에서 모문화(home culture)에 대한 태도와 자문화(host culture)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화(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4개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문화에 대한 태도는 그것을 고수하려는 것과 버리려는 태도로 나뉘고, 자문화에 대한 태도는 그것을 습득하고 관계 맺으려 하는 것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나뉜다. 통합의 경우 모문화를 고수하면서 자문화도 습득하려는 전략을 말하고, 동화는 모문화를 버리고 자문화만을 습득하는 전략, 분리화는 자문화와 교류하지 않고 모문화만을 고수하려는 전략, 그리고 주변화는 모문화도 버리고 자문화도 습득하려 하지 않는 전략을 말한다. 하지만 모문화나 자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경계선으로 기준이 뚜렷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고

려할 수 있으며, 자문화에 대한 태도와 모문화에 대한 태도는 서로 독립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Berry, 2005).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합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양쪽 문화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해 더 적응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남순현, 2010; 정안숙 등, 2015; Berry, 2005; Ince et al., 2014; Bakker, Zee, Oudenhoven., 2006; Imamura & Zhang, 2014).

선행연구들은 Berry(2005)의 문화변용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을 주로 이주민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확장하여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을 이해하는 데 활용해보고자 한다. 이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귀국 후에도 재적응의 과정을 겪으면서 문화변용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문화 재적응 스트레스(re-acculturation stress)라고 한다(Martine, 1984). 재적응은 적응과 유사하게 일련의 문화변용 과정을 거치고 문화 차와 관련된 문제들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귀국 학생들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 문화변용전략 이론이 적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문화변용전략의 4가지 전략을 재적응 과정에 맞게 적용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문화변용전략에서 자문화를 지배적인 문화(dominant culture)로 보았던 점과 개인이 적응해야 하는 문화가 한국 문화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 재적응의 경우에 지배적인 문화이자 다시 새롭게 적응이 필요한 문화(자문화)를 한국 문화로, 지배적이지 않지만 해외 경험으로 친숙해져 있는 문화(모문화)를 북미의 문화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의 전략은 한국 문화와 북미 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경우이고, 동화의 전략은 한국의 문화만을 고수하고 북미의 문화를 거부하는 경우이고, 분리화의 전략은 한국의 문화를 배척하고 북미의 문화만을 고수하는 경우이고, 변두리화는 한국의 문화도 배척하고 북미의 문화도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변용 전략의 관점을 활용하여 어떠한 전략이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 수준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고, Berry(2005)가 제시한 가장 효과적인 적응 전략인 통합(integration) 전략의 효과를 탐색해 보기 위해 두 문화 가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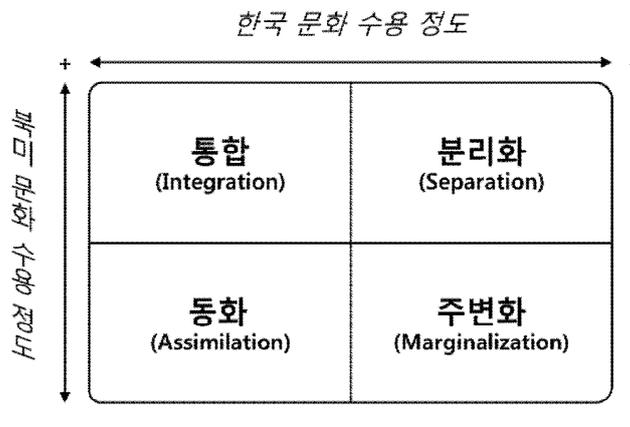


그림 1. 재적응에 적용한 Berry의 문화변용전략

Kim과 Omizo(2005)는 문화변용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이주민들의 문화 가치를 탐색하였다. 이들은 특정 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로 그 문화를 얼마나 고수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 가치란 특정 문화권에서 바람직하거나 긍정적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는데 (Smith & Bond, 1994), 결국, 개인이 특정 문화 가치를 고수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것은 문화변용이 일어날 때 이주민들이 취하는 태도를 말하며, 문화적 가치 수용 정도는 그들의 문화변용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예, Choi & Miller, 2014)에서 이주민의 문화변용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를 사용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하고자 하는 귀국 학생들의 문화변용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문화 가치와 북미 문화 가치를 모문화와 자문화의 가치로 측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문화 변용전략이론에서 자문화에 대한 태도와 모문화에 대한 태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귀국 학생들도 한국 문화 가치와 북미 문화 가치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미 지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미 문화권으로 이주한 아시아인들의 문화변용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아시아계 미국의 가치(Asian American Value Scale-Multidimensional: AAVS-M)와 유럽계 미국의 가치(European-American Value Scale for Asian American: EVAS-AA-R)를 척도를 이용하여 각 가치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자들이 문화변용전략과 적응의 관련성을 연구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합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

강하고, 양쪽 문화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해 더 적응적이라고 보았다(남순현, 2010; 정안숙 등, 2015; Berry, 2005; Ince et al., 2014; Bakker et al., 2006; Imamura & Zhang, 2014). 이주민이 사용하는 문화변용전략에 따라서 적응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적응의 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서도 문화변용전략이 문화적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귀국 학생들의 한국 문화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 수준과 북미 문화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국내 재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문화변용전략, 사회적 지지와 재적응

문화 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정신적 안정과 보호를 받게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이주민의 문화 적응 상황에서 연구하였고,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이승중, 1996; 김수영, 2016; Thomas & Choi, 2006; Yeh & Inose, 2003; Zhang, 2012).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활용 가능하거나 이미 제공 받았다고 인지하는 사회적 자원을 말하는데(Cronkite & Moos, 1995), 이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가족, 친구, 중요한 대상이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된다(Hobfoll, Vaux, Goldberger, Breznitz., 1993). 처음에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등장하였다가(Haggerty, 1980), 이후 스트레스 상황의 개인에게 대처 가능하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공감과 돌봄을 주는 것으로 정의되었다(Barrera,

Sandler, & Ramsay, 1981). 국내에서 홍근표(1985)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개인에게 사회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정신적 보호를 하는 방패나 완충의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부적 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Thomas & Choi, 2006; Yeh & Inose, 2003). 국내에서도 김수영(2016)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국내 문화 적응을 높은 수준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했다. 김현주(2007)는 나홀로 조기유학생들이 현지에서 보호자를 대신할 만한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 적응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이민자들의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적합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Kovacev & Shute, 2004).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재적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이 취하고 있는 문화변용과정과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특히 사회적 지지가 문화변용전략과 재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탐색한 선행 연구는 없어 본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Berry(1997)에 따르면, 모문화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적으며, 이주한 문화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이주민 기대에 부합할 경우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양쪽 문화권의 사람들과 지지적인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Berry는 이를 ‘통합’의 문화변용전략과 유사한 결과라고 보았다. 호주에 정착한 청소년 난민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Kovacev & Shute, 2004)에서 참가자들이 통합의 전략을 취할 경우,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북미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통합의 전략을 사용할 경우, 북미권에서 형성한 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재적응 중인 한국 문화에서도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여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재적응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귀국 학생들이 통합이 아닌 분리화(separation) 전략을 취하여 북미 문화가치만을 선호하고 한국 문화 가치를 거부할 경우, Adler(1981)가 지적한 대로 학생들이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유학생생활로 인한 내적 변화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집단에서 쉽게 소외되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재적응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귀국 학생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문화변용전략과 재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문화 지능과 재적응

문화 적응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 있는데, 그 대표적 요인으로 문화 지능(cultural intelligence)이 있다. 문화 지능이란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능하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데(Earley & Ang, 2003), 기업이나 학교 등의 여러 문화적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Ang, Van Dyne, & Rockstuhl, 2015). 문화

지능은 인간의 지능에 메타 인지적, 인지적, 동기부여적, 행동적 요인이 있다는 Sternberg와 Detterman(1986)의 이론에 착안해서 다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도 같은 요인들이 적용될 것을 가정하여 고안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다(Early & Ang, 2003).

먼저 행동적 문화 지능(behavioural cultural intelligence)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Early & Ang, 2003). 인지적 문화 지능(cognitive cultural intelligence)은 자신이 상호작용해야 할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구체적인 지식을 말한다(김민희, 김명철, 2015; Van Dyne, Ang, & Koh, 2008). 동기적 문화 지능(motivational cultural intelligence)은 타 문화와 상호작용 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갖고 상호 작용을 즐기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 상호 작용에 대한 효능감을 말한다(김민희, 김명철, 2015; Early & Ang, 2003; Reichard, Dollowet, & Louw-Potgieter, 2013).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metacognitive cultural intelligence)은 개인이 문화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의 문화적 지식수준을 인지하고,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전략을 수립하거나, 문화 간 상호작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말한다(김민희, 김명철, 2015; Ng, Van Dyne, & Ang, 2009a, 2009b).

문화 지능은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경제 체제 역시 글로벌해지고,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작용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실무적인 관심과 필요성에 의해 개념화 되었으나(Ang et al., 2007), 점차 그 연구 대상이 확장되어 기존의 기업 장면뿐 아니라

(이신전, 송계충, 2012) 여러 문화권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백미순, 장인실, 2014),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 연구되었다(김민희, 김명철; 2015).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학생 대상 연구에서 문화 지능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부적으로 예측했다(Khan, 2015). Lin, Chen, 그리고 Song (2012)도 유학생들의 문화 지능이 그들의 문화 적응과 강한 정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Presbitero(2016)은 오스트리아의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 충격과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으며 문화 지능이 이를 조절함을 발견하였고,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에게서도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고 문화 지능이 이를 조절함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문화 지능이 상호 문화 능력으로써 개인이 한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화 지능은 개인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Berry(1997)가 설명한 문화변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g, et al (2015)은 이러한 문화 지능이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고양될 수 있고, 구체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개인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 지능 하위요인의 특징을 보면, 이는 단순히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나 지식 수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고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기 때문에(Ang et al, 2015), 귀국 학생들이 해외 경험 이후 한국 사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귀국 학생		국내 학생		전체 학생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1	29.8	123	33.6	154	32.8	
	여자	65	62.5	227	62.0	292	62.1	
	무응답	8	7.7	16	4.4	24	5.1	
만 나이	18	0	0	7	2.0	7	1.5	
	19	5	10.4	38	10.4	43	9.1	
	20	6	11.5	42	11.5	48	10.2	
	21	9	9.8	36	9.8	45	9.6	
	22	15	12.6	46	12.6	61	13.0	
	23	18	11.7	43	11.7	61	13.0	
	24	11	12.8	47	12.8	58	12.3	
	25	16	9.6	35	9.6	51	10.9	
	26	8	6.0	22	6.0	30	6.4	
	27	2	3.0	11	3.0	13	2.8	
	28	2	2.5	9	2.5	11	2.3	
	29	3	1.4	5	1.4	8	1.7	
	30 이상	1	2.5	9	2.5	10	2.0	
	무응답	8	7.7	16	4.4	24	5.1	
	학기	1	5	4.8	8	2.2	12	2.6
		2	15	14.4	53	15.8	73	15.5
		3	5	4.8	10	2.7	15	3.2
4		11	10.6	67	18.3	78	16.6	
5		3	2.9	17	4.6	20	4.3	
6		14	13.5	37	10.1	51	10.9	
7		9	8.7	33	9.0	42	8.9	
8		26	25.0	80	21.9	106	23.6	
9		8	7.7	21	5.7	29	6.2	
10 이상		0	0	17	4.7	20	4.2	
무응답		8	7.7	16	4.4	24	5.1	
북미국가	3년 이상 4년 미만	32	31.1					
거주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30	28.9					
	5년 이상 6년 미만	11	10.8					
	6년 이상 7년 미만	7	6.8					
	7년 이상 8년 미만	2	2.1					
	8년 이상 9년 미만	7	6.8					
	9년 이상	7	6.8					
	무응답	8	7.7					
정체성	한국	52	50.0					
	한국과 북미 국가	33	31.7					
	북미 국가	4	3.8					
	둘 다 아님	5	4.8					
	기타	2	1.9					
	무응답	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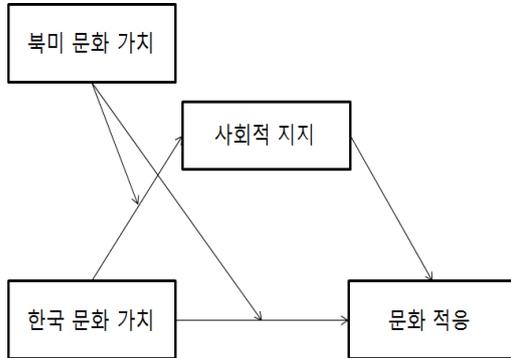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회에 효과적으로 재적응을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적응을 잘 예측하고,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문화 지능이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

본 연구는 Berry(1997)의 문화변용전략의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귀국 대학생들의 재적응 수준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문화 지능이 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귀국 대학생들의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 북미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 두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재적응을 예측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연구문제 2). 이를 위해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상정하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북미 국가에서 3년 이상 수학한 대학생은 104명 [남성: 31명(29.8%), 여성: 65명(62%)]이었고, 나이는 만 19세부터 32세까지의 분포로 평균 나이는 23.43세였다. 학기는 1학기부터 9학기까지의 분포로, 평균 학기는 5.57학기였다. 연구 대상 중 국내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닌 대학생은 366명[남성: 123명(33.6%), 여성: 227명(62.0%)]이었고, 나이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분포로 평균 나이 22.81세였다. 학기는 1학기부터 10학기 이상까지의 분포로 평균 학기는 5.69학기였다. 귀국 학생 중 북미 국가에서 거주한 기간은 3~4년인 학생이 32명(32.0%), 4~5년은 30명(28.9%), 5~6년은 11명(10.8%)이었다. 귀국 학생 중 52명(50.0%)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에 두고 있다고 응답했고, 33명(31.7%)은 한국과 미국/캐나다, 4명(3.8%)은 미국/캐나다, 5명(4.8%)은 한국과 미국/캐나다 모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17개 대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SNS(페이스북 등)의 대학교 게시판에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웹 링크를 게시하였고, 모든 설문은 온라인에서 실시되었다. 설문은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힌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귀국 학생용 설문은 연구변인 척도와 함께 불성실한 참여자를 가리기 위한 타당도 2문항을 포함하여 총 117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국내 학생용 설문은 귀국 학생용 설문에서 한국 재적응 척도를 제

외하고 총 10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응답에는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지급하였다. 총 응답자 563명의 자료 중 설문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470명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다차원적 아시아계 미국의 가치 척도(Asian American Value Scale - Multidimensional: AAVS-M)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아시아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을 측정하여 문화전계(enculturation)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다차원적 아시아계 미국 가치 척도(Asian American Value Scale-Multidimensional: AAVS-M; Kim, Li, & Ng, 2005)를 Yon(2012)이 역번안 과정을 통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한국 문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개발된 척도는 없으며, 이 척도는 문화전계의 관점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아시아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인 아시아 가치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므로 북미 국가에서 수학하고 온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한국의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으로, 집단주의, 규범 순응, 정서적 절제, 개인의 성취와 가족의 성취 동일시, 겸손의 5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Kim, Atkinson, Yang(1999)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81과 .8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계수는 국내 학생 .89와 귀국 학생 .90이었다.

유럽계 미국의 가치 척도(European - American Value Scale - Asian American - Revised; EAVS-AA-R)

북미의 문화 가치의 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럽계 미국의 가치 척도(EAVS-AA-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18문항으로 구성된 유럽계 미국의 가치 척도(European-American Value Scale for Asian American: EAV-AA; Wolfe, Yang, Wong, & Atkinson, 2001)을 개정된 버전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북미 문화권의 주류 가치를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북미 국가에서 수학하고 온 귀국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북미의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용했다. 이 척도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1차 번안을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 과정 중인 이종언어자 1인이 역번안을 하였다. 이후 미국 대학 문화 인류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원어민이 7점 리커트 척도(1점: 완전히 다름, 7점: 완전히 동일함)을 사용하여 역번안 문항과 원문항의 유사성을 평정하였다. 유사성 평정점수가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다시 번안하고 이종언어자 1인이 역번안을 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되는 상황들은 아이의 양육, 결혼, 자율성, 성적 자유와 관련이 있다. 각 항목은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Kim과

Omizo(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는 .6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낮추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2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국내 학생 .65와 귀국 학생 .64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에서 이승미(2004)가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를 채택하여 문항을 축소한 것을, 황나리(2011)가 1개 문항을 제외한 것으로 채택했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황나리(201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국내 학생 .90과 귀국 학생 .90이었다.

문화 지능 척도(Cultural Intelligence Scale: CQ)

문화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 지능 척도(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ng과 동료들(2007)이 개발하고 백미순과 방인실(2014)이 번안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4개의 하위 척도인 행동적 문화 지능, 인지적 문화 지능, 동기적 문화 지능, 메타인지적 문화 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서 번안한 백미순과 방인실(2014)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국내 학생 .90과 귀국 학생 .90이었다.

문화 적응 척도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좌동훈(2013)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화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회적 활동 제약, 개인적 차별, 정서적 문제, 사회적 소외 등을 측정하고자 했다(좌동훈, 2013). 원 척도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귀국 학생이므로 그들이 이주하였던 북미 국가인 미국/캐나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좌동훈(201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먼저 귀국 학생 집단의 표본의 크기가 가지는 검증력을 알아보기 위해 G*Power 3.1을 활용하여 검증력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을 위해서 귀국 학생과 국내 학생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elch's t-test를 실시하고자 한다. Welch's t-test는 본 연구와 같이 비교하는 집단 간 표본 수의 차이가 있을 때 독립표본 검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Wilcox, 2003).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PROCESS Macro Model 8(Hayes, 2013)을 이용하여 문화 지능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한국 문화 가치와 재적응의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PROCESS는 하나 이상의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들이 포함된 모형을 검증할 수 있고, 공변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ayes, 2013).

연구 분석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을 사용하여 검증력 분석도 실시하였다(우성범, 정미나, 성낙윤, 강충명, 양은주, 2009). G*Power 3.1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검증력 분석(power analysis) 프로그램으로 통계검증에서 검증력의 크기나 분석에 필요한 표본수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Faul, Erdfelder, Lang, Buchner, 2007). 그 결과 본 연구에서 효과크기(Effect size) 0.15, 일종오류(alpha) 0.05에서 검증력이 0.95이상이기 위해서 필요한 표본의 수는 89명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 학생은 총 104명으로 최소 표본 이상의 수를 확보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한 측정 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 계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한국 가치의 수용 수준은 복미 가치의 수용 수준과 문화 지능과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신뢰도 계수

	1	2	3	4	5	
1 한국의 가치	-	-.52**	-.10*	.01	-	
2 복미의 가치	-.63**	-	.28**	.21**	-	
3 문화 지능	.01	.21*	-	.15**	-	
4 사회적 지지	-.14	.31**	.07	-	-	
5 문화적응	.04	.16	.04	.40**	-	
귀국 학생	평균	3.59	2.89	5.27	3.73	3.75
	표준편차	0.64	0.22	0.73	0.83	0.67
	왜도	-0.39	0.21	-0.08	-0.58	-0.25
	첨도	-0.54	-0.22	-0.11	-0.32	-0.14
	신뢰도	.90	.64	.91	.95	.87
국내 학생	평균	3.79	2.81	4.73	3.93	-
	표준편차	0.58	0.25	0.76	0.59	-
	왜도	-0.12	-0.39	-0.11	-0.66	-
	첨도	0.47	0.21	-0.15	1.07	-
	신뢰도	.89	.65	.90	.90	-

주 1. 상관분석 결과의 대각선 왼쪽 하단은 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대각선 오른쪽 상단은 국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주 2. ** $p < .01$, * $p < .05$

주 3. 귀국 학생(N=104), 국내 학생(N=366)

각각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r=-.522$, $r=-.102$), 복미 가치의 수용 정도는 문화 지능과 사회적 지지와 각각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276$, $r=.212$). 한편 측정 변수들의 왜도나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2와 4를 넘지 않으므로 정상성 가정에 위배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미 가치의 수용 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신뢰도는 .86에서 .95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복미 가치의 수용 수준은 신뢰도가 .65와 .64로 높지는 않으나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는 선행 연구(George & Mallery, 2003)에 따라 본 연구에도 포함 시켰다.

귀국 학생과 국내 학생의 문화 가치, 문화 지능, 사회적 지지의 차이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귀국 학생과 국내 학생이 한국의 문화 가치 수용, 복미의 문화 가치 수용, 문화 지능,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간의 크기 차이를 고려해 Welch's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귀국 학생과 국내 학생 간에는 한국 가치의 수용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t=3.287$, $p<.001$) 귀국 학생

이 국내 학생보다 한국 가치의 수용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미 가치의 수용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2.48$, $p<.01$) 귀국 학생이 국내 학생보다 복미 가치의 수용 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 지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t=-6.45$, $p<.001$), 귀국 학생이 국내 학생보다 문화 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2.25$, $p<.03$) 귀국 학생이 국내 학생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더 낮았다.

한국 문화 가치와 문화 적응의 관계에서 복미 문화 가치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검증

연구문제 2를 탐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Model 8을 사용하여 문화 지능의 영향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한국 문화 가치와 문화 적응의 관계에서 복미 문화 가치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매개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 및 부트

표 3. 귀국 학생과 국내 학생의 문화 가치, 문화 지능, 사회적 지지 관련 Welch's *t*-test

	귀국 학생		국내 학생		<i>t</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 문화 가치	3.59	.64	3.79	.58	3.29**
복미 문화 가치	2.89	.22	2.81	.25	-2.48*
문화 지능	5.27	.73	4.73	.76	-6.45**
사회적 지지	3.73	.83	3.93	.59	2.25*

주 1. ** $p<.01$, * $p<.05$

주 2. 귀국 학생(N=104), 국내 학생(N=366)

표 4. 한국 문화 가치와 문화 적응의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종속변수: 사회적 지지					
	B	se	t	LLCI	ULCI
상수	14.3267	5.5557	2.5787*	3.3029	25.3505
한국 문화 가치	-3.9421	1.5016	-2.6252*	-6.9217	-0.9625
북미 문화 가치	-3.6396	1.8413	-1.9767	-7.2931	0.0138
한국x북미	1.3896	0.5122	2.7129*	0.3733	2.4060
문화 지능	-0.0373	0.1091	-0.3415	-0.2538	0.1793
R ²	.1611				
F	4.7513				
종속변수: 문화적응					
	B	se	t	LLCI	ULCI
상수	7.5720	4.1575	1.8213	-.6784	15.8224
한국 문화 가치	-1.9402	1.1250	-1.7247	-4.1728	0.2923
사회적 지지	0.2335	0.0728	3.2070*	0.0890	0.3780
북미 문화 가치	-2.1529	1.3599	-1.5832	-4.8515	0.5457
한국x북미	0.7305	0.3846	1.8993	-0.0327	1.4937
문화 지능	-0.0473	0.0791	-0.5974	-0.2042	0.1097
R ²	.1963				
F	4.7873				

주 1. *p<.05

주 2. 귀국 학생(N=104)

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검증을 위해서 95,000회의 표본추출을 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문화 지능은 통제하였다.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했는데, 우선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과 북미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1.3896,

t=2.7129, p<.05). 이는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한국 문화 가치와 북미 문화 가치 둘 다의 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 적응에 있어 사회적 지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335, t=3.2070, p<.05). 이는 귀국 학생들이 한국에 재적응할 때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문화변용 전략에 해당

하는 한국 및 미국 문화 가치 수용의 효과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 지능은 문화 적응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한국 문화 가치와 사회적 지지의 경로에서 북미 문화 가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도식화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 (Hayes, 201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북미 문화 가치의 특정한 값(mean과 mean±1SD)에서 한국 문화 가치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

기 위해 그림 3을 제시하였다.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한국 문화 가치와 사회적 지지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낮은 경우 한국 문화 가치와 사회적 지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한국 문화 가치와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북미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이 낮으면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이 높더라도 더 적은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표 5. 한국 문화 가치와 사회적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의 조절효과

북미 문화 가치	B	se	t	LLCI	ULCI
M-1SD	-.2748	.2114	-1.2997	-.6943	.1447
mean	.0664	.1578	.4211	-.2466	.3795
M+1SD	.4077	.1916	2.1274*	.0274	.7879

주 1. * $p < .05$

주 2. 귀국 학생(N=104)

주 3. 종속변수 =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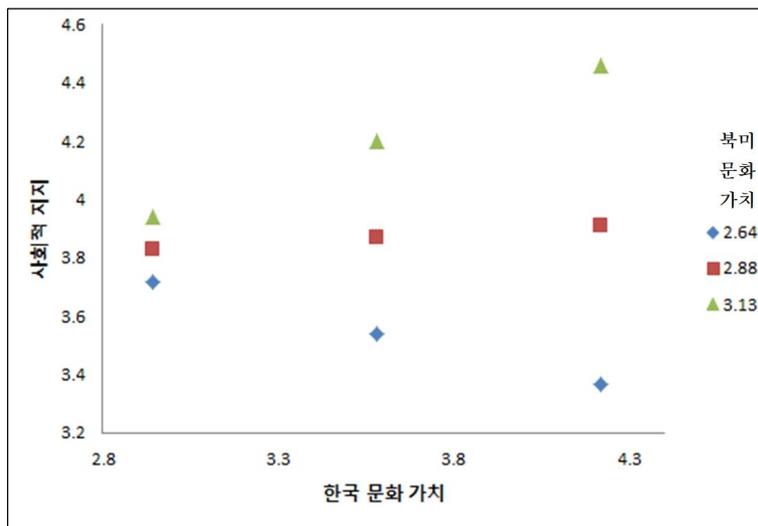


그림 3. 한국 문화 가치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의 조절효과

표 6. 북미 문화 가치 조건 값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트스트랩	조절변인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검증	북미 문화 가치	.3245	.1724	.0466	.7163
	북미 문화 가치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조건부	mean -1SD	-.0642	.0506	-.1818	.0174
간접효과	mean	.0155	.0336	-.0489	.0862
	mean±1SD	.0952	.0573	.0016	.2283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공식 검증인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LLCI= .0466, ULCI= .7163)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문화 가치와 문화 적응의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간접효과,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북미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 별로 확인하는 조건부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건은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낮은 경우(mean-1SD), 보통인 경우(mean), 높은 경우(mean+1SD)로 각각 설정하였다. 표 6에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mean+1SD)에만 신뢰구간(LLCI= .0016, ULCI= .2283)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해외 거주 후 국내로 돌아온 귀국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가치,

북미의 문화 가치, 사회적 지지, 문화 지능과 한국 재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문화변용전략과 재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문화 지능을 통제한 후 한국 문화 가치와 재적응의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예비 분석으로 귀국 학생 104명과 국내 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의 문화 가치, 문화 지능, 사회적 지지에서의 차이점을 기초로 귀국 학생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귀국 학생의 경우 한국과 북미의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두 문화 가치를 동시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북미의 문화 가치 수용은 문화 지능과 사회적 지지 모두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지지와 재적응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미 가치의 수용 수준은 문화 지능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북미 가치를 많이 수용하는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재적응과도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귀국 학생들은 국내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연구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귀국 학생들은 국내 학생들보다 한국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낮고,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약간 높고, 문화 지능이 높았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으나, 집단 간 성별, 연령 분포에 차이가 있어서 집단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두 집단 평균값 차이가 크지 않아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제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 간에 의미 있게 존재한다면 귀국 학생들이 해외 경험 중에는 한국 문화를 접할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문화 적응 과정에서 한국 문화 가치를 고수하기보다 북미의 문화를 접하고 수용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해외 경험을 통해 문화 지능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 지능이 해외 경험, 교육, 혹은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Ang et al., 2007; Ang & Van Dyne, 2008; Rockstuhl, Seiler, Ang, Van Dyne, Annen, 2011). 또한 귀국 학생들은 국내 학생들보다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국내 학생들보다 낮았는데, 이들이 활용 수 있거나 의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국 학생들은 해외로 이주했을 때 기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공간적으로 단절된 경험도 있고, 주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는데(이기홍, 2005), 귀국 후에도 국내 학생들과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 더 힘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귀국 학생들은 국내 학생들의 주요 변인에 있어서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재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문화 가치와 재적응의 관계에서 북미 문화 가치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문화변용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과 재적응과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에 조건부 간접효과가 있어, Berry(2005)의 문화변용전략의 4가지 전략 중 통합 전략인 경우, 즉 북미와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이 둘 다 높은 경우에 귀국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여 재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미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지며 조건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국 학생이 통합의 전략을 가지고 모문화와 자문화의 가치를 모두 수용하고 있을 때, 주변의 지지를 더 잘 받아 재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에 정착한 유고슬라비아 출신 청소년 난민의 적응을 탐색한 Kovacev와 Shute(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Kovacev와 Shute(2004)는 이 연구에서 통합의 전략과 또래의 사회적 지지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Berry(1997)는 모문화와 자문화의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응을 더 잘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귀국 학생들이 통합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북미 문화권에서 형성했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형성한 사회적 관계에도 지지를 받아 재적응을 잘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통

합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귀국 학생들은 한국 재적응을 위해 미국 문화적 가치를 버리고 무비판적으로 한국 문화 가치에 순응(assimilation)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북미에서의 경험을 여전히 존중하고 수용할 뿐 아니라 귀국 후의 한국 문화 가치도 잘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결국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재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양쪽 문화에 대해 적응하고 있고 문화 전계가 되어 있는 문화공존(multiculturalism)이라고 하는데(Berry, 2005), 이러한 결과는 Berry(2005)가 통합의 문화변용 전략을 취하는 이주민이 정신건강과 적응 수준이 높다고 주장한 바를 재적응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적응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귀국 학생들을 조력하고 상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한국 문화 가치와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이 둘이 상반된 부분이 있고 상충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둘을 동시에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귀국 학생들 상담 시 이러한 갈등을 탐색하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 귀국 학생들에게 있어 북미 가치의 수용 수준이 낮은 것은 자신의 해외에서의 경험과 관련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한국 문화 가치의 수용 수준이 낮은 것은 국내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둘의 가치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는 귀국 학생들의 특정 문화 가치의 수용은 그 문화권의

사회적 관계나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는 귀국 학생들이 양쪽의 문화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취사 선택하고 과거 해외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성찰하고 새롭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이주하는 경우 친구의 수가 더 적다는 것이 밝혀졌는데(Myers, 1999), 앞선 예비 분석에서 귀국 학생들이 국내 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았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귀국 학생들이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경우 이들의 사회적 지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 지능은 귀국 학생들의 문화 적응 수준을 예측하지 못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문화 지능은 타문화 이주 상황에서의 적응을 예측해왔으나(Huff, Song, & Gresch, 2014; Khan, 2015; Lin et al., 2012; Presbitero, 2016), 귀국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 분석 결과에서 귀국 학생들의 한국 가치 수용 정도와 문화 지능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미 문화 가치 수용 수준은 문화 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문화 지능이 해외로 이주해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Barbuto, Beenen, & Tran, 2015; Huff et al., 2014; Khan, 2015; Lin et al., 2012; Presbitero, 2016), 문화 지능이 모문화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문화로 돌아온 후의 재적응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화 지능이 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이 다른 문화와 관련

된 다문화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되어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특정 문화 가치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를 북미 국가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로 제한하였으며, 이들을 조기유학 시기, 귀국 시기, 학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으로 조기유학을 떠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화 가치를 측정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북미 문화 가치 척도를 이용하여 귀국 학생들의 문화변용전략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북미 국가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한정되었고,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든 조기 유학 경험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문화권을 나누어 국내 재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정체성 발달 단계 등에 따라 외국에서의 수학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유학 시기와 기간, 귀국 시기, 나이 등을 더욱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문화 지능은 적응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었으나 현 연구에서는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 수준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귀국 학생들이 국내 학생들에 비해 높은 문화 지능을 보였으나, 적응이나 재적응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Huff et al., 2014; Khan, 2015; Lin et al., 2012; Presbitero, 2016). 하지만, 구체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탐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 지능이 재적응 과정에서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사용했으나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있음을 반영하지 못했다. 김수영(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는 유의미하게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문화 적응을 예측했으나 친구의 지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집단의 유형에 따라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국 후에 귀국 학생들이 지각하는 내집단 혹은 외집단과의 소속감을 탐색하거나, 내집단과 외집단에 따른 사회적 지지 효과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재적응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첫째, Berry(2005)의 문화변용전략 이론을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첫 연구로써 기존 이론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문화변용전략의 통합적 전략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또한 대학생 귀국 학생들은 표본 수집이 어려워 관련 연구가 부재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미 국가에서 수학한 귀국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다 탐색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상담 장면에서 귀국 학생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개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문화 가치의 상호작용 효과 결과는 귀국 학생들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전략으로 단순히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뿐 아니

라 북미 문화 가치에 대한 수용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세계화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고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지능을 가진 귀국 학생들이 다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기여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희숙 (2010). 나홀로 조기유학생의 유학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청소년 복지연구, 12(3), 119-142.
- 곽영호 (2000). 귀국학생의 중학교 사회과 수업에 관한 연구: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4(2), 87-99.
- 김민희, 김명철 (2015). 문화 지능과 성격, 문화 경험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159-176.
- 김소희, [특별기획-조기 유학 ①] 조기 유학 다녀와도 '주류' 못 된다...1/3로 급감한 유학생. (2015, December 2). 데일리한국. Retrieved December 16, 2015.
- 김소희, [특별기획-조기 유학 ②] 대입·취업 '재수'하는 '리터니'들...유학 경험이 오히려 걸림돌 되기도. (2015, December 7). 데일리한국. Retrieved December 16, 2015.
- 김수영 (2016). 사회적 지지가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호 (2002). 귀국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 이중언어학, 21.
- 김현주 (2007). 미국조기 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 적응 유형 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4), 977-998
- 박주용 (2011). 귀국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 언어학연구, (20), 23-4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미순, 장인실 (2014). 다문화 교사교육과정을 위한 초등교사의 문화지능 연구. 교육과정연구, 32(4), 217-240.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25-146.
- 우성범, 정미나, 성낙윤, 강충명, 양은주 (2009).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 책임귀인이 연애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79-895.
- 이기홍 (2005). 미국으로의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 열망. 사회과학연구, 44, 105-122.
- 이승미 (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9), 157-176.
- 이신전, 송계충 (2012). 문화지능과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의 문화 적응의 매개역할 분석. 인적자원개발연구, 15(2), 75-100.

- 이장영, 최화순 (1996). 해외 귀국 학생의 적응.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1-66.
- 정안숙, 오경자, 오서진, 박규리 (2015). 해외거주 귀국대학생들의 “모국”문화재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1-20.
- 장지영, 박규리 (2008). 한국의 귀국학생들의 정체감에 관한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514-515.
- 정재욱, 주은선 (2003).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29-351.
- 최동훈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근표 (1985). 간호원의 소진경험에 관한 분석적 연구: 개인적 특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나리 (2011).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모형 검증: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적극적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dler, N. J. (1981) Re-entry: Manag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Group & Organization Studies*, 6(3), 341-356
- An, I. (1985). A study on Returnee students'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ng, S., & Van Dyne, L. (2008). Handbook of cultural intelligence. New York: ME Sharpe.
- Ang, S., Van Dyne, L., Koh C., Ng, K. Y., Templer, K. J., Tay, C., & Chandrasekar, N. A. (2007). Cultural intelligence: Its measurement and effects on cultur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cultural adaptation and task performan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3, 335-371.
- Ang, S., Van Dyne, L., & Rockstuhl, T. (2015). Cultural intelligence: Origins, conceptualization, evolution, and methodological diversity. In M. J. Gelfand, C. Y. Chiu, & Y. Y Hong (Eds.), *Handbook of advances in culture and psychology*, 5: 273-32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kker, W., Zee, K. V., & Oudenhoven, J. P. (2006). Personality and Dutch Emigrants' Reactions to Acculturation Strateg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2), 2864-2891.
- Barbuto, J. E., Beenen, G., & Tran, H. (2015). The role of core self-evaluation, ethnocentrism, and cultural intelligence in study abroad succ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3(3), 268-277.
- Barrera, M., Jr., Sandler, I.N., & Ramsay, T.B. (1981).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435-447.
- Baughn, C. (1995). Pers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effective repatriation. In J. Selmer (Ed.), *Expatriate management: New ideas for international business* (pp. 215-230). Westport, CN: Quorum Books.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28.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Black, J. S. (1992). Coming home: The relationship of expatriate expectations with

- repatriation adjustment and job performance. *Human Relations*, 45(2), 177-192.
- Black, J. S., Grgersen, H. B., & Mendenhall, M. E. (1992a). Toward a theoretical framework of repatriation adju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6(4), 737-760.
- Chamove, A. S., & Soeterik, S. M. (2006). Grief in returning sojourn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13(3), 215-220.
- Choi, I. (2009, June). Socio-cultural Readjustment of Korean Students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87-98.
- Choi, N.-Y., & Miller, M. J. (2014). AAPI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role of culture, stigma, and attitu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340-351. <https://doi.org/10.1037/cou0000027>
- Cronkite, R. C., & Moos, R. H. (1995). Life context, coping process, and depression. In E. Beckham & B. Leber (Eds.), *Handbook of depression* (2nd ed., pp. 569-587). New York, NY: Guilford.
- Early, P. C., & Ang, S. (2003). *Cultural intelligence: Individual interactions across cultures*.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aul, F., Erdfelder, E., Lang, A-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9, 175-191.
- George, D., &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Haggerty, R. J. (1980). Life Stress, Illness and Social Support.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22(3), 391-400.
- Han L, Berry JW, Zheng Y (2016)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on Strategies to Resilience: The Moderating Impact of Social Support among Qiang Ethnicity following the 2008 Chinese Earthquake. *PLoS ONE* 11(10): e016448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64484>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obfoll, D. E., Vaux, A., Goldberger, L., & Breznitz, S. (1993). *Social support: Social resources and social context*.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2nd ed.). New York, NY: Free Press.
- Huff, K. C., Song, P., & Gresch, E. B. (2014). Cultur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cross-cultural adjustment: A study of expatriates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151-157.
- Imamura, M., & Zhang, Y. B. (2014). Functions of the common in group identity model and acculturation strateg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erican host nationals' communication with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3, 227-238.
- Ince, B. Ü, Fassaert, T., Wit, M. A., Cuijpers, P., Smit, J., Ruwaard, J., & Riper, H.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in Turkish migrants in the Netherlands. *BMC*

- Psychiatry, 14(1).
doi:10.1186/s12888-014-0252-5
- Kovacev, L. & Shute, R. (2004).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refugees resettle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59-267.
- Khan, K. A. (2015). Predicting effect of cultural intelligence on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Ravishankar University.*
- Kim, B. S. K., Atkinson, D. R., & Yang, P. H. (1999). The Asian Values Scale: Development, factor analysis,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42-352.
- Kim, B. S. K., Li, L. C., & Ng, G. F. (2005). Asian American Values Scale -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1*, 187-201.
- Kim, B. S., & Omizo, M. M. (2005).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Collective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General Self-Efficacy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12-419.
- Lin, Y., Chen, A. S., & Song, Y. (2012). Does your intelligence help to survive in a foreign jungle? The effects of cultur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ross-cultur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6*(4), 541-552.
- Linehan, M., & Scullion, A. (2002). Repatriation of female international manag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3*(7), 649-658.
- Martin, J. N. (1984). The intercultural reentry: Conceptualization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 115-134.
- Myers, S. (1999). Childhood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774-789.
- Ng, K. Y., Van Dyne, L., & Ang, S. (2009a). Developing global leaders: The role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cultural intelligence. *Advances in Global Leadership, 5*, 225-250.
- Ng, K. Y., Van Dyne, L., & Ang, S. (2009b). From experience to experiential learning: Cultural intelligence as a learning capability for global leader development.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8*, 511-526.
- Presbitero, A. (2016). Cultural intelligence (CQ) in virtual, cross-cultural interactions: Generalizability of measure and links to personality dimensions and task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0*, 29-38.
- Reichard, R. J., Dollwet, M., & Louw-Potgieter, J. (2013). Development of cross-cultural psychological capital and its relationship with cultural intelligence and ethnocentrism.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9*, 150-164.
- Rockstuhl, T., Seiler, S., Ang, S., Van Dyne, L., & Annen, H. (2011). Beyond general intelligence (IQ) and emotional intelligence(EQ): The role of cultural intelligence(CQ) on cross-border leadership effectiveness in a globalized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67*, 825-840.
- Rogers, J., & Ward, C. (1993). Expectation-

- experience discrepanc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7(2), 185-196.
- Schaetti, B. F. (1996). Transition programming in international schools: an emerging mandate, *Inter-Ed.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Education*, 24, 12-19.
- Szkudlarek, B. (2010). Reentry-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1), 1-21.
doi:10.1016/j.ijintrel.2009.06.006
- Smith, P. B., & Bond, M. H. (1994).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s: Analysis and perspectives. London: Allyn & Bacon.
- Sussman, N. M. (1986). Re-entry research and training: Method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235-54.
- Sternberg, R. J., & Detterman, D. K. (1986). What is intelligence? Norwood, NJ: Ablex.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2), 123-143.
- Van Dyne, L., Ang, S., & Koh, C.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QS: The cultural intelligence scale. In S. Ang & L. Van Dyne (Eds.), *Handbook of Cultural Intelligence: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New York, NY: Sharpe.
-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 329-343.
- Wilcox, R. R. (2003). *Applying Contemporary Statistical techniqu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Wolfe, M. M., Yang, P. H., Wong, E. C., & Atkinson, D. R. (2001).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European American values scale for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7, 274-283.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6, 15-28.
- Yon, K. J. (2012). College student's and counselor trainees' perceptions of a psychologically healthy person: A comparative study on cultural val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 Zhang, Y. (2012). "An Examination of Acculturative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Child and Family Studies - Theses*. Paper 3.

원고접수일 : 2019. 09.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2. 13

게재결정일 : 2020. 08. 19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Values, Cultural Intelligence, and Readjustment to Home Culture for Returnees: Medi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Seonmin Lim

Sogang University / Master's Degree

Kyujin Yon

Sog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effects of cultural values on readjustment were mediated by social support among South Korean students who studied in North America before college(returnees). A mediation model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Korean cultural values and readjustment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Korean cultural values and social support was moderated by North American cultural values was tested. A sample of 563 college students (104 returnees, 366 Korean-educated-only)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Welch's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the study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Korean cultural values and readjustment was mediated by social support, and this mediation effect was moderated by North American cultural valu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returnees using integration strategies and embracing cultural values of both societi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social support and readjust effectively in Korea.

Key words : *Returnee, Korean Cultural Value, North American Cultural Value, Social Support, Cultural Intelligence, Readjustment*